

TV 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list programs like '40 토크쇼 A', 'KBS 뉴스광장', '2TV 아침', 'MBC 뉴스투데이 1~2부', etc.



“축제 느낌으로 뽐뽐하게 채웠어요”

걸스데이 새 앨범 ‘러브’ 발표... 소녀시대와 맞대결 “선배들과 함께 해 영광”

“5년이 후다닥 지나갔어요.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니 저희가 대견스럽기도 하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500년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혜리)
걸그룹 걸스데이(소진, 유라, 민아, 혜리)가 데뷔 5년 만에 정규 2집 ‘러브’(LOVE)를 발표했다. 걸스데이가 새 앨범을 선보이는 것은 작년 7월 ‘달링’ 이후 1년 만이다.
2010년 데뷔한 걸스데이는 ‘기대해’, ‘여자대통령’, ‘썸썸’, ‘달링’ 등의 곡을 차례로 히트시키며 정상급 걸그룹으로 발돋움했다. 걸스데이는 데뷔할 때 ‘처다보지도 못했던’ 선배 소녀시대와 같은 주제 신곡을 발표하며 울여름 걸그룹 대전의 2막을 열었다.
걸스데이는 6일 서울 강서구 KBS스포츠월드에서 쇼케이스를 열고 “더 좋은 노래와 모습을 보여주려다 보니 1년이란 시간이 흘렀다”며 “앨범을 들으면 수록곡이 ‘뽐뽐’하다고 느끼실 것”이라고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타이틀곡인 ‘링마벨’(Ring My Bell)은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 쿡쿡거리는 심장 소리를 벨소리가 울린다고 표현한 곡으로, 강렬한 비트와 중독성 강한 후렴구가 인상적이다.
혜리는 “앨범 수록곡들이 다 좋아 무슨 곡을 타이틀곡으로 할지 고민했다”며 “걸스데이가 이전에 불렀던 곡과는 다른 느낌의 경쾌한 곡이다. 들으면 신난다”고 설명했다.
씨스타, 에이오에이(AOA), 나인뮤지스 등 동료 그룹들이 포문을 연 걸그룹 대전에 합류하는 소감을 물으니 “다른 그룹들이 너무 예뻐다”라는 의외의 답이 돌아왔다.
민아는 “다른 그룹들의 무대를 챙겨보면서 눈과 귀가 즐거웠다”며 “가게에 이름을 올리려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 울여름이 축제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걸스데이의 새 앨범은 이날 자정, 즉 7일 0시에 공개된다. 최정상 걸그룹으로 불리는 소녀시대 역시 7일 싱글 ‘파티’(PARTY)를 발표하며 컴백한다. 걸스데이와 마찬가지로 소녀시대도 수영복을 무대상으로 선택하면서 콘셉트가 겹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진은 “걸스데이 입장에서 여전히 좋은 무대를 보이는 선배들과 함께 활동한다는 건 영광이다”라며 “수영복을 다른 선배가 입는다고 해서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뮤직비디오에서 표현하고 싶은 영상이 있어 수영복을 입었을 뿐이지 선배들과는 콘셉트가 다르다”며 “소녀시대는 삼겹살고, 걸스데이는 어지러운 블랙홀을 표현했다”고 선을 그었다.
혜리는 “3년 전 선배들과 같이 활동을 한 적이 있다”며 “저희는 달린 게 없는데 이제(소녀시대와) 같이 이름을 올려주니 감개무량하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만 든다”고 덧붙혔다.
데뷔 5주년을 맞아 달린 점이 궁금했다.
걸스데이는 “시간이 갈수록 책임감도 커지고, 마음가짐도 달라졌다”며 “1년 만에 나오려니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책임감이 컸다”고 토로했다. 이어 “예전에는 곡이나 이상만 신경을 썼는데 이제는 저희 모습을 대중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고민한다. 시각이 넓어졌다”고 말했다.
멤버들은 5주년 기념으로 나온 이번 앨범에 애착이 크다고 거듭 강조했다. 애착이 큰 만큼 노래, 뮤직비디오, 안무 등에 멤버들이 많은 부분 참여했다고 했다.
혜리는 “그동안 걸스데이가 보여준 모습이 소극적인 당당함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경쾌하고 밝은 모습을 더 보여주고 싶었다”며 “그래서 더 공을 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500년 동안 활동하고 싶은 걸스데이가 보는 자신들의 매력은 무엇일까. 마지막으로 물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저희의 장점은 변신이라고 생각해요. 앨범마다 변화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해요. 이번 앨범 보시면 ‘걸스데이가 났다’ 하실 거예요. 그만큼 신선하고 재밌는 거라고 생각합니다.”(혜리)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5:40 성공시대 가능한국민(재)
06:10 세계의 눈(재)
07:00 뽀빠에 친구(재)
07:15 책과 광(재)
07: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재)
07:45 꼬마버스 타요(재)
08:00 당동당 유치원
08:20 로보카 폴리(재)
08:35 방귀대장 뽐뽐이
08:50 코코콩 3
09:05 원더볼츠(재)
09:20 풍선 꼬끼리 발루보
09:35 이팝 스페이스 정글

09:40 토크쇼 부모-그녀의 품격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1:0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1:10 다류 오늘
11:20 세계대마(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걸작 다큐멘터리
13:05 지식채널e
13:10 유근두근 학교에 가면
13:40 사이먼-지구인 자격평가
13:50 할랄라 뽀빠에
14:00 마야의 모험
14:15 정글북 2
14:30 머털도사

15:00 초능력 특공대
15:15 두키 탐험대
15:30 뽀빠에 친구
15:45 부흥! 부흥! 브루미즈
16:00 당동당 유치원(재)
16:20 원더볼츠
16:30 우당탕탕 아이쿠
16:45 책과 광
17:00 방귀대장 뽐뽐이(재)
17:15 풍선 꼬끼리 발루보
17:30 두디대공
17:45 로보카 폴리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
19:00 곤

19:30 EBS 뉴스
19:50 사선에서
20:40 다류 오늘
20:50 세계대마(재)
21:30 한국기행
21:50 EBS 다류 프라임
22:45 극한직업
23:35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24:10 한국영화특선
24:10 한국영화특선 <초록 물고기>

EBS플러스1

00:00 올림포스 <국어II-일찌개념>
00:50 <고교 영어독해-junior>
01:40 <화물과 통계>
02:30 <기하와 벡터>
03:20 <수학II>
04:10 올림포스 평가문제집 <기하와 벡터>

07:00 2015 공인중개사 시험대비강좌
07:30 경찰직 공무원 시험대비 강좌
08:30 약학·의학·치학 입문자격시험
09:10 중학단기특강 <영어I 독해240제>
09:50 <수학I 280제>
10:30 TV중학 <도덕I>
11:10 중학단기특강 <영어2 독해240제>
11:50 <수학2 300제>
12:30 EBS 특강 <사회 1-1>
13:10 등업신공 <사회 1-1>
13:50 <사회 2-1>
14:30 <역사 1-1>
15:20 만점왕 <사회 3-1>

EBS플러스2

12:10 올림포스 <국어II-일찌개념>
13:05 <고교 영어독해-junior>
14:00 2016 수능완성 <국어B>
14:50 올림포스 <화물과 통계>
15:40 <기하와 벡터>
16:30 <수학II>
17:20 올림포스 평가문제집 <기하와 벡터>

15:50 <사회 4-1>
16:20 <사회 5-1>
16:50 <사회 6-1>
17:20 만점왕 평가문제집 <진과목 5-1>
18:00 중학단기특강 <영어3 독해240제>
18:40 <수학3 300제>
19:20 필독중학국어 <시>
20:00 EBS 인문학특강 <시>
20:50 EBS 기획시리즈 <사회 1-1>
21:40 EBS UCC 공모 나피디 <사회 2-1>
22:00 등업신공 <역사2-1>
22:40 중·기 시험대비 <과학3-1>
23:20 필독 <사회2>

“‘한공주’로 13관왕... 새 작품에 책임감이 컸죠”



주목받는 여배우 천우희... 영화 ‘손님’ 출연

“‘한공주’로 영화 시상식에서 13관왕을 했어요. 어깨가 많이 무거워요. 관객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불안하기도 하고요. 책임감을 느끼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한결같이 연기하려고요.”
여배우 천우희(28·사진)는 영화 ‘한공주’ 이후 첫 작품을 선보이는 소감을 이렇게 전했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 ‘한공주’는 지난해 독립영화계에서 건져 올린 값진 수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 중심에는 오롯이 주인공 ‘공주’를 따라가는 천우희의 빼어난 연기가 있었다.
천우희는 ‘한공주’로 각종 시상식을 휩쓸며 단숨에 흥몰로에서 가장 주목받는 여배우로 자리매김했다.
“‘한공주’를 기점으로 배역이 정말 많이 들어오긴 해요. 일을 이렇게 많이 해본 적이 처음이예요. 저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 같아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작품을 만나고, 좋은 결과도 얻었으니까요.”
그녀는 이번엔 6·25 전쟁 직후 깊은 산 속의 마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판타지 호러 영화 ‘손님’에서 신내림을 기다리는 선무당이자 젊은 과부 ‘미숙’을 연기했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8일(음 5월 23일 乙酉)

48년생 바야흐로 길경을 맞이하게 되리라. 60년생 상호 관련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구조로 가고 있느니라. 72년생 부실함과 혼란이 보이는 과도기이다. 84년생 활이 꺾이고 화살이 다 떨어진 이치이다. 행운의 숫자 : 13, 94
49년생 불합리한 점을 해소 해야만 목적하는 바를 도모할 수 있다. 61년생 일보 전진을 위한 것이라면 이보 후퇴도 무방하다. 73년생 서두르다면 오히려 더딜 수 있다. 85년생 크게 탄식할 만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50, 59
38년생 넘치는 것은 절대로 부족함만 못하느니라. 50년생 경중은 저울로 달아 봐야 한다. 62년생 시험대에 오를 수도 있다. 74년생 목표를 좀 더 높게 설정해도 무방하다. 86년생 비단 옷을 입고 밤길을 걷는 격이로다. 행운의 숫자 : 34, 04
39년생 지나치다보면 치명적일 수도 있다. 51년생 작은 것을 소중히 다루야 큰 것을 얻는다. 63년생 순간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니라. 75년생 체면만을 유지 하리라. 87년생 비밀리에 조용히 실행해야만 할 일이 있다. 행운의 숫자 : 30, 52
40년생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라. 52년생 근거부터 확보해두지 않으면 아니 된다. 64년생 기본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76년생 한 번의 실수가 공든 탑을 무너뜨릴 수도 있음을 알자. 행운의 숫자 : 23, 06
41년생 바늘 허리 못 매어 쓰느니라. 53년생 충심이 깃들어야 감동을 줄 수 있느니라 65년생 단독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음을 알자. 77년생 유장한 능선에 휘둘릴 수도 있으니 긴장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3, 15

42년생 많은 질병과 재앙이 입으로부터 비롯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54년생 냉정히 돌아져 불일이다. 66년생 쉽게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었다. 78년생 일시적인 반복이나 불협화음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38, 60
43년생 작은 배가 큰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에 비유할 만하다. 55년생 예상대로 준비한다면 적기에 쓸 수 있다. 67년생 특별한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79년생 어느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어야겠다. 행운의 숫자 : 56, 44
44년생 잘만 활용한다면 상당한 수익으로 연결 될 수도 있었다. 56년생 진중하게 견지한다면 마침내 성취하리라. 68년생 강력한 역할 관계 하에 놓이는 판세이니라. 80년생 가끔씩 내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18, 10
45년생 표현적으로 발휘 필요가 있다. 57년생 자기 확신이 지나치다면 주변인들에 대하여 피해를 줄 수도 있음을 알자. 69년생 밤길에 달리지 가우니 격정부터 앞서라. 81년생 쉽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었다. 행운의 숫자 : 26, 65
46년생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58년생 자유롭게 뜻을 펼치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을 수다. 70년생 알려야만 하는 다양한 상황에 놓인다. 82년생 현혹 되더라도 상당한 낭비를 부를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5, 25
47년생 과거의 잘못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다. 59년생 많은 의문을 남기고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니라. 71년생 상당 조정 되거나 훨씬 늘어난다 판시세로다. 83년생 잘 알아보고 써야만 부자 용이하다. 행운의 숫자 : 73, 23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

색다른 음악이 듣고 싶다면



소니뮤직, ‘컴필레이션 앨범’ 잇따라 발매

댄스 음악이 주를 이룬 요즘 무언가 색다른 음악을 듣고 싶어하는 이들을 위한 컴필레이션(편집) 앨범이 잇따라 발매됐다.
7일 음반유통사 소니뮤직에 따르면 지난날 23일 발매된 ‘비처럼 음악처럼’은 비오는 날이라는 주제로 40곡을 선정해 두 CD에 실었다. 앨범은 발매 직후 예스 24 팝 앨범 순위 3위에 오른 등 주목을 받고 있다.
‘비처럼 음악처럼’은 비와 어울리는 감미로운 보컬을 자랑하는 가수들의 노래들을 모았다. 앨범에서는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정규 5집에 실린 ‘세이프 프롬 마이셀프’, 사라 맥라클란의 자작곡 ‘러브 컴’, ‘소울 쿨’ 엘리사 키스의 ‘라이크 유 윌 네버 시 미 어게인’은 물론 에이브릴 라빈, 켈리 클락슨, 레이첼

야마기타 등의 곡도 만나볼 수 있다.
현재 27만명이 구독 중인 페이스북 페이지 ‘오늘 뭘 듣지?’와 함께 기획한 컴필레이션 앨범 ‘오늘 뭘 듣지?’도 눈에 띈다.
소니뮤직은 매일 다른 추천곡을 소개해주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맞춰 언제 들어도 좋은 클래식·팝을 엄선했다. 앨범은 영화, 드라마, 광고에서 자주 삽입된 곡들을 주로 수록해 친근한 느낌까지 준다.
두 CD로 구성된 클래식 편에서는 첼리스트 요요마가 연주한 ‘G선상의 아리아’, 영화음악감독 엔니오 모리코네의 ‘시네마 천국’, 펠레라 그룹 일 디보의 ‘넬라 판타지아’ 등을 감상할 수 있다.
팝 편에는 사라 바렐리스의 ‘그레비티’, 아카펠라 그룹 펜타토닉스의 ‘프러블럼’, 현대자동차 광고 음악으로 익숙한 휴먼네이처의 ‘투 비 위드 유’ 등이 담겼다.
/연합뉴스